

8지구 - 봉일천 성당

설립 1999년 10월 1일 전화 사무실 031-945-9901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비말길 79-5

제1독서 코헬 1,2; 2,21-23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 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 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 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 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

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 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콜로 3,1-5,9-11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루카 12,13-21

영성체송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버릴 수 없는 욕심이라면



강명호 마르코 신부
탄현동 부주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 난 잠을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어휴 착한 내 딸아)
 졸졸 나를 따라온 Happy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
 (Uh, 애가 말한대!)

이런 Money(돈) 저런 Power(권력)
 그것만 따, 따, 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잔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 Red Velvet - 행복(Happiness) >

+주님의 평화.

몇 년 전 K-POP(한국대중가요) 한 인기곡의 가사입니다. '돈과 권력만 따라가는 어른들은 안타까워 보여. 행복해보이지 않아.' 이번 주일 복음을 연상하게 하는 글입니다(골로 3,5; 루카 12,21 참조). 10대 젊은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세상의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탐욕을 경계하여라.(루카 12,15)” 탐욕. ‘지나치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먹을 걱정 없는 시대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갖고 싶은 것 사고, 가꿈 외식도 합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싸고 좋다고 자랑스레 쌓아놓는 물건들, 충동으로 하나씩 더 담겨있는 장바구니, 여러 가지 취미로 늘어만 가는 소품들, 그럴듯한 여행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첩, 남들 가는 맛집에 수없이 앉아있는 기억들…….

그리고 기쁨은 점점 더 무디어져 간다는 것도 절감합니다. 그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잠언 27,20 참조). 그런데 그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버릴 수 없는 욕심이라면, 마음껏 부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의욕을 불태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골로 3,1)." 아득하지만 질리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참 행복을 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전복의 이승과 저승

바다 속 암초에 서식해 살고 있는 전복이 있었다.

처음 그는 조개는 조개일 뿐 다들 같다고 믿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조개도 여러 종류로 제각각 살고 심지어는 진주를 지닌 별난 조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나는 비범한 조개이지 못하고 평범한 전복인가.’

내내 속을 끓이던 전복은 산호초 속에 살고 있는 거북도사를 찾아갔다.

“도사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개면 다들 같은 능력을 주어야지 왜 이렇게 피조개가 있고 비단백합이 있고 진주조개가 있습니까?”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나?”

“저도 우아한 조개에게 해 주십시오.”

“그건 내 임무 밖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전복이니 전복답게 살려무나. 네 일을 성실히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너도 진주 못지않게 쓰일 데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제 일을 제가 사랑하여야겠네요.”

“물론이지.”

이후, 전복은 결혼질을 하지 않고 오직 햇볕 거르는 제 일만을 하면서 살았다.

누구를 닮으려 하지도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전복이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승으로 와보니 한줄기 아름다운 자개가 되어 있었다.

장롱에 무늬 높아진 그를 보고 한 여인이 탄복을 하였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자개가 있을까.” 🍀

밀알 하나가

덕소 성당 박미옥 카타리나



‘하느님의 집’ 신설 성전 부지 마련 기금에 큰 후원을 하신 박미옥 카타리나 자매가 7월 26일 선종하셨습니다. 이번 주보에서 돌보지 않아도 찬란하게 피어있는 나리꽃을 닮은 카타리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박미옥 카타리나 자매는 2015년에 덕소 성당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야생화반의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는 많은 교우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거나 아름다운 꽃 사진을 보내는 등, 언제나 주변인들의 기쁨을 생각하시곤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배우자인 안교성 프란치스코 형제를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께서 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던 카타리나 자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주변인들은 증언합니다.

이런 카타리나 자매의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한 의정부 교구 내 신설 성전 부지 마련 기금인 ‘하느님의 집’ 후원에 꾸준히 봉헌해 주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시며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기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24일에는 ‘하느님의 집’ 후원금으로 5억 원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의 토지(1,062)를 기증하시며 ‘하느님의 집’ 완공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모두에게 알려질 만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총으로 존재하시는지,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는 항상 그런 갈망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타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단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 자매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평소 스스로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며 조용히 활동하시는 걸 선호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선종하신 지 채 반년 되지 않아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카타리나 자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화살기도를 청합니다. 주님, 박미옥 카타리나 자매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한국 신흥 유사 종교의 특징 2 - 종말론

유사종교들의 교주들은 대부분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앞선 사이비 지도자들의 저서나 강연,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추종 등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름대로 변형 발전시키며 이론화하고 있다.

4.1. 시한부 종말론과 천년 왕국설

유사종교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천년왕국설'이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성경을 거꾸로 거슬러 계산해보면,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제 칠천 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천 년, 안식의 때가 열린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날짜를 계산하면, 종말의 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한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실제 역사(歷史)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 하느님 앞의 인간은 누구인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인간과 이루시고자 하는 바(구원)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성경의 관심은 정확한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 구원의 계획과 활동에 놓여 있다. 그래서 때로 역사적 사건을 말하지만, 전혀 역사와 무관한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4.2. 조건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자들은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144,000명설, 곧 자신들의 신도 수가 144,000이 되면 종말이 시작된다는 주장을 편다. 신천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신천지는 20만이 넘었다!)

4.3. 파괴적 종말론

시한부나 조건부나 사이비 종말론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을 말한다. 살아남는 자들은 오로지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일종의 공포감을 심어 자신들을 따라오게 만든다. 파괴적 환난의 때에 특정한 장소로 도피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이런 부류다.

4.4.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마지막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마태 24,36; 마르 13,32) '주님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등의 표현으로 성경에 표현되는 이날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당신을 보여주는 날이다. 이날은 주님 앞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며, 동시에 미완성의 것들이 완성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날이다. 이날은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날이다.

우리의 종말론은 이처럼 구원론에 바탕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피 흘리며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며,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곧 종말은 파멸의 날이 아니라 완성과 구원의 날이다.

덧붙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파괴적 종말에 대한 말씀은 회개를 이끌기 위한 경고, 곧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 사

2019.08.14. 16시

의정부 평화의 소녀상열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작은형제회 정의평화창조보전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여름에 만난 겨울의 시드니 주교좌성당

세인트 메리 대성당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8월의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무더위를 식혀줄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제가 소개할 성당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나라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주교좌 세인트 메리 대성당(St Mary's Cathedral, Sydney)입니다. 주일 교중 미사, 100미터가 넘는 길이에 폭이 25미터에 이르는 대성당은 저의 예상을 뒤집고 자신의 넓은 공간을 신자들로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향, 그리고 복사들과 사제단의 '행렬'로 미사가 시작되자, 로마네스크 시대에 장방형의 바실리카 양식이 성당 건축의 표준형이 되었던 사연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더구나 초기 로마네스크에서는 중앙의 네이브와 양쪽의 아일로 구성된 삼랑식 바실리카가 기본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고딕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천년의 시간을 이어오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눈앞에서 장엄한 전례 행렬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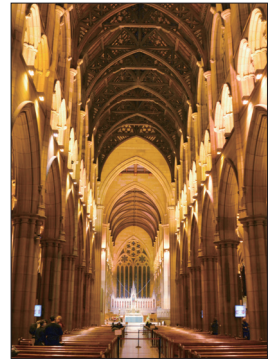
처음의 세인트 메리 성당은 200년 전인 1821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65년의 화재로 성당은 소실되었고, 1868년에 지금의 대성당 주춧돌을 다시 놓은 것입니다. 호주의 주보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봉헌된 대성당은 13세기 서유럽의 주류였던 고딕 양식을 취했는데, 이를 네오고딕(neogothic)이라고 부릅니다. 고딕은 지금 우리의 여정인 로마네스크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된 독창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그것이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18세기에 네오고딕으로 부활하여 19세기 서구 사회의 성당 건축을 주도하였습니다.

네오고딕 양식인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는 고딕만이

아닌 로마네스크 성당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당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것은 압도적인 크기의 내부 공간입니다. 네이브 월의 높이가 22.5미터인데, 고딕의 전형적인 3단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이미 로마네스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성당 구조물들의 재료입니다. 1층의 아케이드(arcade, 아일), 2층의 트리포리엄(triforium, 갤러리), 3층의 천측창(clerestory)으로 구성된 3단 네이브 월의 높은 구조물을 이루는 기둥과 벽체는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사암(sandstone)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 아일과 소성당의 천장도 사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브의 천장은 사암이 아닌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멜버른의 주교좌 성당인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도 천장을 목재로 올린 것으로 보아 당시 호주에서는 네이브의 높고 넓은 볼트 천장의 재료로 석재보다 목재가 적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 정면 출입구



세인트 메리 대성당 네이브, 네이브 월, 천장

말씀 전례가 시작되고 우리는 루카 10,25~37의 '가장 큰 계명'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봉독 후 사제는 제대를 벗어나 우측의 높은 단(pulpit)에 올라 강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게 높고 넓은 네오고딕 대성당 안에 가득 차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



8월 9(금) 15시 해외선교 관심사제 모임

교구장 동정



교구 소식

행주 성당 미사(전대사) 문의: 031-974-1728

8/5(월) 11시: 교향직할 성모대성전 주보 축일 8/15(목) 11시: 성모 승천 대축일 /고백성사: 10시

8월 불나팔미사(정의평화위원회 월례미사) 안내

일시 8/7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 교하성당

의정부 EXODUS 직원 모집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돕는 업무 대상 영어사용가능자 (중급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원서 마감: 8/4
접수 이메일 umwc2000@uca.or.kr 문의 031-878-6926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청년 도보순례

일정 8/15~18(3박4일) 대상 하루 20km 도보순례가 가능한 청년
접수기한 8/4 참가비 본인부담 7만 원(14만 원 지원-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
문의, 접수 청소년국, 순교자공경위원회(031-850-1498)

생태영성학교

현재 생태 위기를 바라보며, 생태적 회개와 바른 생활로 이끄는 이론 6회, 탐방 2회로 구성된 교육
이론 8/26(월)~10/7(월) 19:30 장소 신앙교육원
탐방 9/7(토), 10/12(토) 오전 10시 수강비 6만 원(강의별수강가능: 이론 1만 원, 탐방 2만 원)
접수마감 8/23(금)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1~2

청년전례학교(보수과정) 안내

교육내용 전례 활용에 필요한 스피치/성가/복사 교육(<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일시 9/7(일토)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신앙교육원
접수기간 7/12(금)~8/24(토) 대상 이전(2012~2019년) 청년전례학교 기본과정을 수료한 청년
참가비 1인 2만 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850-1460)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본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일시 9/22(주일)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문의 031-840-0742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순례자의 얼굴 - 내가 바라본 평화 - 나의 이웃은?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월피정

일시: 8/5(월) 10시~16:30(미사포함)
 강사: 이은형 디모테오 신부(일산 성당 주임)
 장소: 주교좌성당 대성전
 문의: 010-3790-0496

성령의 열매와 치유피정 교구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금) 21시~01:30시 마두동 성당
 (8/9) /주제: 제 9주 절제
 강사: 김영철 베드로신부(교구 담당 및 능곡주임)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010-8729-0025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

일시,장소: 8/13, 파티마 평화의 성당(952-6324)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점심제공)
 미사후 성체거동 행렬(10시~14시미사)

제60기 가톨릭 복음선교교육 1박2일

일정: 8/24(토)~25(주일). 시작10시. 마침17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11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신·구약 성경 통독피정 (8박9일)

일시: 8/23(금)~31(토) /48만 원
 10/18(금)~26(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일시: 8/15(목)~21(수), 9/20(금)~26(목)
 (6박7일) 내용: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피정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기간: 8/23~25, 9/1~4(추자도), 9/7~9,
 9/16~18(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기간: 8/10~13, 8/15~18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9/28~29, 10/26~27
 3박4일: 8/22~25, 9/5~8
 8박9일: 9/18~26, 10/9~17
 40일: 9/16~10/25, 12/13~20/1/21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상한 마음의 치유 /최준열 신부
 일시/장소: 8/9(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8/10(토) 10시 후곡 성당
 8/17(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9월피정

여름대침묵피정: 8/12(월)~15(목), 8/16(금)
 ~18(일) /월피정: 8/23(일), 8/31(토),
 9/22(일) 10:30~16:20
 추석연휴피정: 9/12(목)~14(토)
 색채심리강좌(무료) 9/23,30(월) 9:30~12:30
 문의: 02-990-1004

서울 삼성산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일시: 8/9(금) 18시~8/11(일) 15시
 강사: 양창우,문호영,이우진신부외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문의: 010-3353-4123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8/15~18, 8/28~30, 9/1~4, 9/18~20,
 9/22~25, 9/27~29



교육 · 모집 ▶▶

한마음수련원 직원모집

근무직책: 팀장 /담당업무: 사무, 행정, 회
 계, 예/계약, 고객응대 등서류마감: 8/23
 (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
 hanmaum84.com 확인

금곡성당 반주자 모집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교적
 시간: 주일 교중미사(11시)
 문의: 031-592-2388, 010-2873-2721

퇴계원성당 주방근무자(식복사) 모집

내용: 근무 일 3~4시간
 서류: 이력서
 문의: 사무실 031-574-1784

제18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 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일시 10/18(금) 19시~20(주일) 17시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문의 가정사무부(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시스티나음악원 화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종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주1회)
 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월요일 오전 11시
 안지영교수의 오르간교실 (개인레슨)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 모집

대상: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교우
 문의: 010-5744-9333

27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9/7(토) 4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일부지원사업
 문의: 광주청소년수련원, 070-4365-7297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9월 개강)

- '몸 신학' 교리해설
 (월) 10시~12시, 임숙희 박사
 - 영신수련 체험과 안내 동반
 (월) 14시~16시, 권오면 신부
 -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 가톨릭 사회교리
 (화) 14시~16시, 전주희 수사
 -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화) 14시~16시, 권오면 신부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전진상 교육관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문의: 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9/5~12/19 매주(목) 10시
독서와 마음나누기 집단상담 (책 제목-내 안의 어린아이) 9/3~10/15 매주(화) 10시~13시
전문심리상담: 가족, 개인, 부부,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기자(취재,편집) /구분: 신입,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문의: 02-778-7679
홈페이지 www.catholictimes.org 참조

서울평협 평신도아카데미 <공의회과정>

현장·교령·선언 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합니다.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사람
일시: 9/2~11/25(매주 월, 19시~21시, 13주간)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수강료: 12만 원(10인 이상 2만 원 할인)
접수 및 상세 안내: 홈페이지 www.clas.or.kr/모바일앱[서울평협] 참조
문의: 02-777-2013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8/11(일) 14시~17시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1번출구)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전례분과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일시: 9/1, 11/3(그외 출강도 가능)
보이스 트레이닝(1:1 개인코칭 포함)
피정비: 1인당 5만 원(선착순 20명)
문의/접수: 032-933-1528(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안내 · 기타 ▶▶

교하성당 설립 10주년 기념 음악회

1회: 8/17(토) 19시
피아니스트 원재연 베드로 독주회
2회: 8/24(토) 19시
그라시아 성가대, 국악한마당, 서예퍼포먼스, 가수 정수라 공연 /장소: 교하성당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 원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 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바로로성모의집이용자모집

시설명 : 바로로성모의집
대상: 치매가 없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담당자: 02-381-7510, 010-5235-1130
참고사항: 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홍성남 신부와 아키타 취소 알림

홍성남 신부와 아키타 순례는 한일 관계로 취소 되었습니다
야곱성지순례: 02-755-3009

야곱전국 성지순례

대전교구: 9/5~9/6, 아동마산: 9/19~9/21
대구교구: 11/7~11/8 /문의: 755-3009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10/2 439만 원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 (문의 : 02-319-2533)

9/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17 동유럽 발칸 5개국 12일 38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9 추석 특선 이스라엘,오르단10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9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4일 13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가족, 효도, 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9/6 이스라엘 9일(추석연휴) 35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코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살레시오회	8/24(토)~25(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14시~16시	명동가톨릭회관 은하수갤러리	010-3015-1773



혼인성사(2) :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에페 5,2)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혼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느 쪽에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유명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뉴스는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무차별하게 쏟아지는 뉴스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 아픈 가정사가 역지로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대략 25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쌍의 새로운 부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 건수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혼 건수는 대략 10만 8천 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쌍이 결혼하지만, 9,500쌍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혼 건수는 전년대비 2.6%가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이혼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08년 68%에서 2018년 48.1%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는 굳이 결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나름 현대적이고 대단히 세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사랑”이라는 소중한 감정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사랑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을 통해 혼인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평생을 기약하고 한 사람과 결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부들은 이 사랑에 참여하며, 이 사랑이 그들을 지탱하고 힘을 주며, 또 그들이 신의를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8항)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혼인성사가 드러내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